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의복 무늬 선호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유 경 숙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 명 희

目 次	
I. 서 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1. 성별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1. 성역할 정체감	2.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2. 의복 무늬 선호	
III. 연구방법	V. 결 론
1. 측정도구	참고문헌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ABSTRACT

I. 서 론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복은 성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육체적·기능적 역할의 차이에서 생긴 남녀의 성차는 의복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즉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와 가사노동 감소, 남녀 평등사상 등으로 성역할 차이가 감소되고 이러한 현상이 의복에도 나타나 의복의 남녀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다.

오늘날 의복에서의 획기적인 사실은 남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어 의복이 다양해지고 색상도 화려해져서 남자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강혜원, 1994, p.315). 또한 여성복의 기능화와 남성복의 다양화로 인해 남녀 모두 캐주얼한 의복을 선

호하게 되었고 유니섹스 스타일의 의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스타일 선호에 대하여 많은 연구(원미숙, 강혜원, 1983 ; 이현미, 1987 ; 문근식, 1988 ; 최희순, 1988 ; 이선재, 장은영, 1990)가 이루어졌다.

한편, 연령에 따라 의복에서 기대되는 차이는 성역할의 차이만큼 두드러지지 않으나 오늘날 의복의 연령역할에 따른 차이도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역할의 모호성과 의복의 기대에 대한 다양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역할과 의복과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유형은 계속 남아있다. 즉, 의복의 어떤 측면이 중요시되는가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유니섹스화 및 캐주얼화 경향으로 인하여 의복의 성차 및 연령차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 성, 연령에 관계없이 선택 가능한 의복을 선정하여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무늬에 대하여 10대 청소년층과 20대 연령층 남녀의 선호도를 30, 40대의 성인 연령층과 비교하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성역할의 변화가 의복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의복 무늬 선호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다.

무늬 선호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교적 성, 연령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남방셔츠의 무늬를 조사 대상 의복으로 선정하였다. 무늬는 남방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가는 체크, 플레이드, 가는 세로줄 무늬와 함께 굵은 가로줄 무늬, 물방울 무늬, 작은 꽃무늬 등의 6가지 무늬의 선호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무늬 선호도를 규명함으로써 의류학 연구분야에서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의류산업체에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의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정체감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역할은 학습하는 것이다. 성 정형화 과정의 결과로 각 개인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어느 정도 습득하여 행동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 정도와 형태를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이라고 한다. 개인에 따라 이 두 가지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남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여성적 특성은 없는 것으로,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왔다(임선옥, 1991).

그러나 현재 급속한 서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성역할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형태와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도 변하게 되어 남성에게 강한 육체적 힘이나 부드러운 정서의 억압, 여성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 같은 남성간의 강한 유대 등을 강조했던 기존의 성역할 보다는 다감하며 감성적인 친밀성, 대인관계의 기술 등을 요구하고 있다(Bernard, 1976).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많은 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곧, 그 반대 성의 특질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이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Bem, 1974 ; 1977 ; Spence 등, 1975).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은 의복에 의해 강화되었고 의복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알맞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행동의 확실한 표현이며, 남성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보여지게 된다. 또한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을 고수하게 된다(Davis, 1984).

이선재(1989)는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의복행동에 있어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역할에 있어 근대적 태도를 가질수록 남자대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을 즐기고, 의복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여자대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을 즐기고 편이성을 중시하며 유행성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의복행동에 관심이 적었다. 최윤경(1990)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인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들에 비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전통적인 여성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고자 하

는 매력성에 관심이 더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보다 자유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김정희, 1990).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여고생이 유니섹스 의복을 더 좋게 생각하였으나(최경희, 강혜원, 1985), 남자고등학생은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의복 수용에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이주현, 강혜원, 조길수, 1986).

한편, 의복디자인 선호와의 관련 연구에서 박인미(1989)는 남향성이 높은 여고생일수록 주황색은 싫어하고 파랑, 남색, 회색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이인자(1976)는 남향성이 높으면 직선과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정립(1990)은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의 여대생이 여성성의 여대생보다 유니섹스 스타일과 양의 디자인 의복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현미(1987)는 남성성 유형의 여대생은 의복행동에서 양의 의복 특성이 높고 여성성 유형은 음의 의복 특성이 높다고 하였다.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의 여대생은 남성성 유형과 여성성 유형의 중간적인 의복특성을 나타냈다.

김재희(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양성성 남자가 유행에 대한 관심, 신분상징성 및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과 미분화 남자는 낮게 나타났다. 즉, 남성적이거나 양성적인 남자의 성격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므로 의복을 통하여 신분을 과시하려 하며 개성적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성의 남자는 타인과 유사한 의복을 입으려는 동조성 성향이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은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수단이 되며 성역할 특성이 의복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직선의 디자인을 선호하며 의복의 개성적인 면이 중요시 되었고, 여성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음의 특성이 나타났다.

2. 의복 무늬 선호

현대 복식에서는 의복의 대량생산에 따라 옷감의 무늬를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늬는 의복디자인 요소 중에 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직선의 모티프와 곡선의 모티프는 느낌이 다르게 나타난다.

옷감의 무늬는 모티프(motif)와 패턴(pattern)으로 구분되는데 모티프는 무늬의 기본단위 형태이며, 패턴은 모티프가 배열된 형태를 뜻한다. 모티프는 사실적인 모티프, 양식화된 모티프, 기하학적 모티프, 추상적인 모티프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적인 모티프는 꽃무늬, 동물무늬 등이 있으며 양식화된 모티프로는 표장무늬, 당초무늬 등이 있다. 기하학적 모티프는 줄무늬, 체크무늬 등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적 감각을 주며, 캐주얼복, 남성복에 많이 사용된다. 추상적인 모티프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자유롭게 배열된 것으로 납염의 크랙무늬가 이에 해당된다. 모티프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무늬의 느낌을 강조한다. 꽃무늬나 물방울무늬 등은 작은 곡선 무늬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무난한 무늬(이은영, 1990, pp.215~216)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여성에게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양식과 성역할 태도 등의 변화로 인해 남성복도 자유로운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캐주얼웨어에는 색, 문양의 선택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꽃무늬, 물방울무늬를 수용하게 되었다.

의복 무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Springer(1970)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년, 소녀 모두 꽃무늬와 점무늬를 선호한 반면, 소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플레이드(plaid)무늬와 줄무늬를 선택하였으며 소녀의 어머니들은 딸을 위하여 꽃무늬와 플레이드무늬를 더 선호하였다.

Forrester(1968)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큰 무늬보다 작은 무늬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Matthews(1969)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증인 학생이 정상체중의 학생들보다 작은 무늬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Taylor와 Compton(1968)은 작은 무늬를 선호하는 사람은 의복의 경제성에 관심이 있으며 이론적인 가치관이 높다고 하였으며 큰 무늬를 선호하는 사람은 심미적 가치관이 높다고 하였다. Compton(1962)은 작은 무늬를 좋아하는 사람은 큰 무늬를 좋아하는 사람과 달리 겸손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려 하며 매우 여성적이라고 하였다. 박길순(1981)의 연구에서는 원피스의 스타일에 따라 무늬 선호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스포티한 스타일일 경우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드레시한 스타일일 경우는 도안화시킨 식물무늬인 전통적인 무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향성이 낮을수록 전통무늬를,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자무늬를 선호하였다. 서미아(1985)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하학적무늬가 가장 선호되었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무늬가 큰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무늬 선호도는 심리적인 면과 관련이 있었다.

이미경(1984)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무지나 기하학적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30, 40대 여성은 드레시한 스타일과 점무늬, 꽃무늬 등 우아한 무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희(1990)의 기혼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서미아, 이선희(1995)의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두 무늬 없는 옷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선호하였다.

김은애(1992)는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성취성이 높을수록 꽃무늬 등 사실적인 무늬를, 다양성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바둑판 줄무늬 등 기하학적 무늬와 불규칙한 추상적인 무늬를 다양하게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포말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꽃무늬 등

의 사실적인 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바둑판, 줄무늬 등 기하학적인 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꽃무늬 등 사실적인 무늬와 점, 글자, 물방울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1996)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여성적으로 지각되기를 원하는 여성은 화려한 무늬의 여성적인 슈트를 선호하였고 남성적으로 지각되기를 원하면 세로줄무늬가 있는 남성적인 슈트를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남성적, 여성적인 성격 특성은 의복의 무늬 선호와 관련이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기하학적 무늬와 꽃무늬 등의 선호가 달리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남방셔츠 무늬에 관한 선호와 성역할 정체감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영(1987)이 사용한 Bem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short form BSRI (Bem Sex Role Inventory)로서 남녀별로 각각 10개씩의 문항에 10개의 中性문항을 포함시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남성성 척도가 .81, 여성성 척도가 .86이었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中央値半分法(median split method)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즉 7점 Likert형 척도에 의해 측정된 남성성 척도 문항과 여성성 척도 문항을 남녀별로 합하여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이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의 성격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여 양성성이라 칭하고,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남성성이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적 성격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여성성이라고 하였으며 마지막 4번째 집단으로서 두 점수가 모두 각각 중앙치 이하이면 양성의 성격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미분화라 칭하였다.

남방셔츠 무늬는 남방셔츠가 성별에 관계없이 입혀지는 품목이므로 무늬 선호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선정하였다. 무늬는 시장조사를 거친 후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림으로 제시가 가능한 것을 택하였다. 남방셔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늬로서 가는 체크, 가는 세로줄무늬 및 플레이드무늬를 택하였으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무늬로 작은 꽃무늬를 택하였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무늬로 굵은 가로줄무늬를 선택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무늬로는 물방울무늬를 선택하였다. 각 무늬를 남방셔츠의 그림 속에서 제시하였다. 각각의 무늬가 있는 남방셔츠의 구입의사를 7단계 척도법에 의하여 1~7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과거 구입한 적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과거에 '구입한 적이 있다'는 4점, '잘 모르겠다'는 2점, '구입한 적이 없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구입의사와 구입경험의 두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남방셔츠 무늬의 선호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1~11점이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로서 성별과 연령분포를 고려하면서 임의표집하였다.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

<표 1> 표집대상 분포

()=%

구분		성별	
		남	여
연령	10대	88(27.1)	100(33.1)
	20대	104(32.0)	67(22.2)
	30대	50(15.0)	75(24.8)
	40대	83(25.5)	60(19.9)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96(29.5)	90(29.8)
	남성성	72(22.2)	61(20.2)
	여성성	74(22.8)	63(20.9)
	미분화	83(25.5)	88(29.1)
계		325(100)	302(100)

포 내용은 <표 1>과 같다. 총 82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627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5년 6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t 검증, 삼원변량분석, 일원변량분석과 Duncu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별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각 무늬 선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때 굵은 가로줄, 가는 체크, 플레이드무늬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굵은 가로줄무늬는 남녀의 선호도 차이가 가장 컸다. 즉 남자는 기하학적인 직선형 무늬를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다. 작은 꽃무늬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물방울무늬와 가는 세로줄무늬의 선호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가장 선호되는 무늬는 남녀 모두 플레이드무늬였으며, 이것은 표준편차도 낮아서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는 남녀 모두 가는 체크, 가는 세로줄무늬가 선호되었다. 즉 남방셔

〈표 2〉 성별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무늬	남(n=325)			여(n=302)			t
	M	SD	M순위	M	SD	M순위	
굵은 가로줄	6.57	2.74	4	5.15	2.99	6	6.17**
물방울	5.21	3.00	5	5.26	3.15	5	-.20
작은 꽃	4.67	3.20	6	5.39	3.13	4	-2.83**
가는 체크	7.19	2.68	2	6.71	2.82	3	2.16*
플레이드	7.58	2.63	1	7.00	2.96	1	2.62**
가는 세로줄	6.87	3.05	3	6.91	2.98	2	-.18

* p<.05 ** p<.01

츠의 무늬로서 남녀 공통적으로 기하학적인 무늬가 비교적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작은 꽃 무늬를 가장 싫어하였고, 여자는 굵은 가로줄 무늬를 가장 싫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의복에서 나타나는 유니섹스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무늬와 같은 전통적인 무늬는 여성의 의복으로 인식되고, 기하학적이며 직선형인 무늬는 남성 의복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플레이드(plaid)무늬와 줄무늬를 선택하였다는 Springer(1970)의 연구를 지지하며, 기하학적인 무늬가 가장 선호되었다는 최승희(1990), 서미아(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무늬 선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서 MC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굵은 가로줄무늬 선호는 모든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주효과를 보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성이나 연령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10대는 가로줄무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는 선호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세분화하여 성 및 연령별로 나누어 무늬 선호를 각각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굵은 가로줄무늬 선호를 성별로 분리하여 연령차를 볼 때 남자는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어서 10대가 굵은 가로줄무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연령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굵은 가로줄무늬를 더 선호하였다. 이것은 굵은 가로줄무늬가 직선의 디자인 특징을 잘 나타내며 직선은 남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Morton, 1964) 전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가로줄무늬를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방울무늬 선호는 〈표 3〉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성 및 연령의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MCA에서 그 차이를 보면 10대가 물방울무늬를 가장 싫어하였고 30대가 가장 선호하였다.

〈그림 1〉은 물방울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그림 1〉, 〈표 4〉에서 물방울무늬 선호는 남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어 30대, 40대에서 선호가 높았으며 10대는 선호가 가장 낮았다. 또한 10대만이 여자보다

<표 3> 무늬 선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의한 삼원변량분석

(n=627)

분석 방법	변량원	df	굵은 가로줄	물방울	작은 꽃	가는 체크	플레이트	가는 세로줄	
3원 변량 분석	성역할정체감(A)	3	1.99	0.94	0.22	2.84*	3.39*	2.43	
	성(B)	1	40.28**	0.01	6.73**	5.20*	6.80**	0.02	
	연령(C)	3	2.68*	13.60**	19.34**	0.55	8.63**	0.66	
	A×B	3	0.19	0.67	0.53	2.17	2.38	1.14	
	A×C	9	0.61	0.95	2.88**	0.56	1.39	0.79	
	B×C	3	2.15	5.28**	3.78**	1.03	5.40**	1.82	
	A×B×C	9	1.65	0.66	0.57	0.84	1.20	1.28	
집단내 오차		595							
	변 인	속 성	N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MCA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186	0.19	0.34	0.34	0.51	0.36	0.30
		남성성	133	0.14	0.35	-0.02	-0.10	-0.36	-0.03
		여성성	137	-0.40	-0.56	-0.40	-0.24	0.27	0.24
		미분화	171	0.00	-0.19	-0.03	-0.28	-0.33	-0.50
				0.08	0.12	0.08	0.12	0.12	0.11
	성 별	남	325	0.68	-0.02	-0.35	0.23	0.28	-0.02
		여	302	-0.73	0.03	0.37	-0.25	-0.30	0.02
				0.24	0.01	0.11	0.09	0.10	0.01
	연 령	10대	188	0.33	-1.07	-1.06	-0.12	0.62	0.03
		20대	171	-0.20	-0.09	-0.31	0.04	0.26	0.07
30대		125	-0.34	1.15	1.62	0.27	-0.67	0.21	
40대		143	0.10	0.51	0.36	-0.12	-0.54	-0.31	
			0.09	0.27	0.30	0.05	0.19	0.0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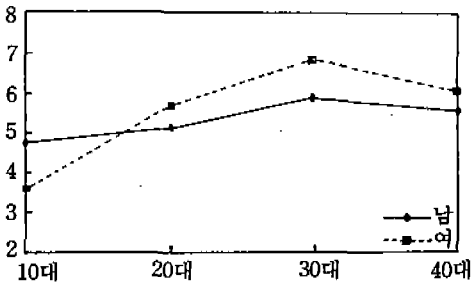
<표 4> 성 및 연령에 따른 무늬 선호의 차이

(n=627)

무늬	성별	연 령				F
		10대	20대	30대	40대	
굵은 가로줄	남	6.69	6.38	7.02	6.38	.79
	여	5.79a	4.61b	4.56b	5.43ab	3.47*
	t	2.16*	3.93**	4.77**	1.99*	
물방울	남	4.80	5.07	5.70	5.50	1.31
	여	3.60c	5.23b	6.84a	6.06ab	20.08**
	t	3.02**	-.33	-2.08*	-1.14	
작은 꽃	남	4.04b	4.34ab	5.46a	5.26ab	3.51*
	여	3.87c	5.25b	7.41a	5.53b	22.30**
	t	.41	-1.96	-3.53**	-.50	

가는 체크	남	6.78	7.16	7.82	7.27	1.63
	여	6.89	6.74	6.84	6.23	.76
	t	-.26	.98	1.89	2.33*	
플레이드	남	7.98	7.46	7.84	7.13	1.75
	여	7.86a	7.70a	5.81b	6.23b	10.32**
	t	.36	-.54	4.00**	1.86	
가는 세로줄	남	6.67	6.75	7.40	6.90	.68
	여	7.14	7.28	6.89	6.13	1.92
	t	-1.06	-1.11	.95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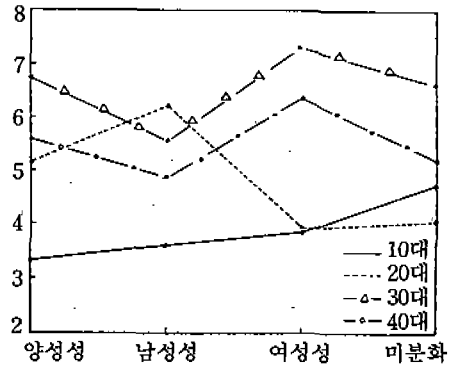
* P < .05 ** P < .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 < .05)



〈그림 1〉 물방울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남자의 물방울무늬의 선호가 높았고, 반대로 30대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선호가 높았다. 이는 물방울무늬가 전통적인 무늬로 10대 여자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져서 새롭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맞지 않는 반면, 30대 여자에게는 무난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30, 40대 여성이 20대보다 점무늬를 선호하였다고 한 이미경(198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작은 꽃무늬 선호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와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성이나 연령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10대가 작은 꽃무늬를 가장 싫어하였다.



〈그림 2〉 작은 꽃무늬 선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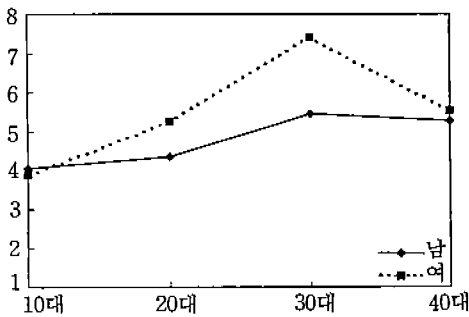
〈표 5〉 작은 꽃무늬 선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른 평균치 (n=627)

성역할 연령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10대	3.26	3.58	3.80	4.78
20대	5.14	6.10	3.93	4.04
30대	6.88	5.54	7.39	6.70
40대	5.69	4.93	6.24	5.14

〈그림 2〉는 작은 꽃무늬 선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며,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5〉와 같다. 〈그림 2〉에서 10대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변화가 적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남성성 집단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성 집단의 작은 꽃무늬 선호가 낮았고 여성성 집단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꽃무늬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모양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제로 30, 40대만 여성성 집단이 작은 꽃무늬를 좋아하였으므로 30대와 40대의 경우만이 여성성과 작은 무늬의 관계가 선행연구(Compton, 1962)를 지지하였다.

〈그림 3〉은 작은 꽃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며,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작은 꽃무늬에 대한



〈그림 3〉 작은 꽃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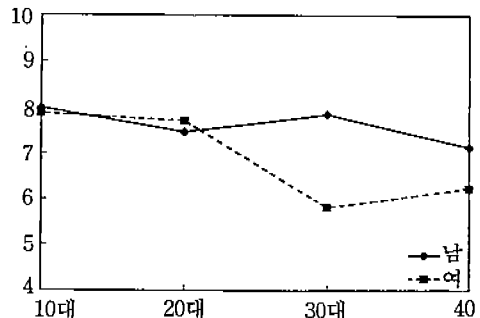
선호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30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10대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남자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적으나 여자는 차이가 커서 10대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자는 20대부터 급상승해 30대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다가 40대에서는 선호도가 낮아졌다. 따라서 30대는 남자보다 여자가 작은 꽃무늬를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10대 여자가 꽃무늬를 싫어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가는 체크무늬에 대한 선호는 〈표 3〉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에서 나타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양성성 집단에서는 가는 체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각 집단을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특히 40대에서 여자보다 남

자가 가는 체크무늬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플레이드무늬에 대한 선호도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성 및 연령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 성, 연령은 각기 플레이드무늬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MCA의 평균치 차이에 의하여 각 독립변인을 비교하면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인 집단은 플레이드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10대가 플레이드를 가장 선호하였다. 〈표 3〉의 eta 계수를 비교해 보면 플레이드무늬 선호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성역할 정체감, 성별의 순이었다.

〈그림 4〉는 플레이드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며 각 집단의 평균은 〈표 4〉에서 제시되었다. 남자는 플레이드무늬 선호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는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는 10대와 20대가 30, 40대보다 플레이드무늬를 선호하였다. 또한 30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특히 30대 여자는 남자보다 플레이드를 더 싫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경(1984)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이 30, 40대에 비해 기하학적 무늬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플레이드무늬는 굵은 직선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여성보다 여대생이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이선재(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림 4〉 플레이드무늬 선호에 대한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가는 세로줄무늬에 대한 선호는 <표 3>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및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도 없었다. <표 4>에서 성과 연령을 분리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가는 세로줄무늬가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는 평범한 무늬이므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의복 무늬 선호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무늬 선호를 조사하기 위하여 남녀 공통으로 착용되는 남방셔츠의 무늬 선호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남방셔츠의 무늬는 플레이드, 가는 체크, 가는 세로줄무늬가 선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굵은 가로줄, 가는 체크, 플레이드무늬는 남자가 더 선호하였고, 작은 꽃무늬는 여자가 더 선호하였다.

2. 무늬 선호는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3. 굵은 가로줄무늬는 여자에게만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대가 굵은 가로줄무늬를 가장 선호하였다.

4. 물방울무늬 선호는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여자는 30, 40대가 물방울무늬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20대, 10대의 순이었다. 또한 10대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선호가 높았으나 30대는 남자보다 여자의 선호가 더 높았다.

5. 작은 꽃무늬 선호는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와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비교에서 30, 40대의 경우 남성성 집단은 작은 꽃무늬를 싫

어하였으나, 여성성 집단은 작은 꽃무늬를 선호하였다. 특히 30대 여자는 작은 꽃무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10대는 남녀 모두 작은 꽃무늬를 가장 싫어하였다.

6. 가는 체크무늬 선호는 연령에 다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어 양성성 집단이 가는 체크무늬를 가장 선호하였다.

7. 플레이드무늬 선호는 성 및 연령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여자는 10대와 20대가 30, 40대보다 플레이드무늬를 더 선호하였다. 또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인 집단이 플레이드무늬를 가장 선호하였다.

8. 가는 세로줄무늬에 대한 선호는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 각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의복 무늬 선호가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인 집단은 가는 체크무늬와 플레이드무늬를, 그리고 30, 40대의 여성성 집단은 작은 꽃무늬를 선호하였다. 연령별 비교에서 10대는 전체적으로 굵은 가로줄무늬, 플레이드무늬 등 기하학적인 무늬를 선호하였으나 물방울무늬, 작은 꽃무늬와 같은 전통적인 무늬를 선호하지 않았다. 30대 여자는 특히 물방울무늬와 작은 꽃무늬의 선호가 높았다. 또한 성별로 비교할 때 남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여자는 작은 꽃무늬를 남자보다 더 선호하였다. 즉 현대 의복에서 나타나는 유니섹스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선형의 기하학적인 무늬는 남자가 더 선호하였고, 꽃무늬와 같은 전통적인 무늬는 여자가 더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10대에서 40대로 한정하였고, 측정도구에서 무늬의 크기와 간격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실제 직물 무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직물디자인을 수집하여 실물에 가까운 자극물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며, 무늬 선호도를 연구할 때 모티프의 배색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강혜원(199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 김선영(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은애(1992).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립(1990). 성 정체감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의복행동 차이.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90). 서울시 남·녀 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재희(1994).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현주(1996).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 이미지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문근식(1988). 남녀 고등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길순(1981). 직물모양의 기호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인미(1989). 여고생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 및 사회계층과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미아(1985). 의복의 무늬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3, 207~226.
- 서미아, 이선희(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41~64.
- 원피숙, 강혜원(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37~44.
- 이미경(1984).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선재(1989).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 서울시내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8, 171~193.
- 이선재, 장은영(1990). 한국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9, 93~116.
- 이은영(1990).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 이인자(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785~799.
- 이주현, 강혜원, 조길수(1986).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3), 63~70.
- 이현미(1987).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 행동간의 관계 : 이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선옥(1991). 남성의 성역할과 광고에 대한 반응.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경희, 강혜원(1985).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1~8.
- 최승희(1990).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최윤경(1990).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직업

- 과 의복행동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희순(1988).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와의 관계 :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Bem, S.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6~205.
 - Bernard, J. (1976). Change and Stability in Sex-Role Norms and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158~165.
 - Compton, N.H. (1962).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ournal of Psychology*, 54(1), 191~195.
 - Davis, L.L. (1984).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 (2), 20~24.
 - Forrester A.T. (1968). Relation of Fabric Preferences to Body Build and Other Selected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58.
 - Matthews, L.B. (1969). Fabric Preferences, Perceptual-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Obes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1(3), 177~182.
 - Morton, G.M. (1964). *The Arts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 3r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pence, J.T., Helmreich, R.,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 of Masculinity, *Social Psychology*, 32, 29~39.
 - Springer, C. (1970).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Relative to Color, Design, and Texture Preference in Kindergarten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60.
 - Taylor, L.C. and Compton, N.H. (1968).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8), 653~656.

ABSTRACT

A Study on Clothing Pattern Preferences Associated with Sex Role Identity, Gender, and 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lothing pattern preferences vary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gender, and age.

Questionnaire of shirt pattern preferences and short form Bem Sex Role Inventory was administered to 627 men and women(10's to 40's) in Kwangju City. Sex role identity was classified in androgynous, masculine,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type.

1. The men liked thick horizon, thin check and plaid pattern better than the women while the women small flower one.

2. The 10's liked thick horizon pattern better than the others.

3. On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women in their 30's liked polka dots pattern better than the men, while the women in their 10's and 20's liked plaid pattern better than the women in their 30's and 40's.

4. On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and age the masculine type in their 30's and 40's disliked small flower pattern, while the feminine type in their 30's and 40's liked it. The women in their 30's liked small flower pattern, while the 10's disliked it more than the others.

5. The androgynous type liked thin check and plaid pattern better than the others.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that sex role identity, gender, and age influenced clothing pattern preferences. Gender and age ha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n the preferences. The traditional connections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flower pattern preferences were confirmed only in the 30's and 40's.